

2026
06.03
주간 제 476 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 | |
|---|---|
| 中 세계 최초! 6G 시험 주파수 사용 공식 승인 | 1 |
|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혁신! 화웨이 '타오(韜)의 법칙' 공식 발표 | 2 |
| 수입 의존 벗어나 26개국 수출, 전기접점 소재 경쟁력 키운 송장 기업 | 3 |

CHINA 창업

| | |
|--|----|
| [산업분석] 선저우 23호, 9개 과학실험 프로젝트 신고 중국 우주정거장 향한다 | 6 |
| [산업분석] 저도고 경제 하드웨어 넘어 운영 경쟁으로, DJI·메이탄·순평풍이 각축 | 10 |
| [기업분석] 이동형 로봇 기업-매니코어 귀즈로봇(国自机器人) | 14 |
| [지역분석] 지린성 창춘 하이테크산업구 | 20 |

KIC 뉴스

| | |
|---|----|
| KIC 중국, 서울경제진흥원·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와 MOU 체결...한·중 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 | 23 |
| 2026한국혁신기업 청두행...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 | 24 |

행사 정보

| | |
|------------------|----|
|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 25 |
|------------------|----|

WEEKLY 뉴스



| | |
|--|---|
| 中 세계 최초! 6G 시험 주파수 사용 공식 승인 | 1 |
|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혁신! 화웨이 '타오(韜)의 법칙' 공식 발표 | 2 |
| 수입 의존 벗어나 26 개국 수출, 전기접점 소재 경쟁력 키운 송장 기업 | 3 |



中 세계 최초! 6G 시험 주파수 사용 공식 승인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IMT-2030(6G) 추진 그룹에 6GHz 대역의 6G 시험 주파수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6G 시험용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다.

6GHz 대역은 중주파 대역 가운데서도 넓은 대역폭을 갖춘 핵심 자원으로, 넓은 커버리지와 대용량 전송, 높은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 5G 중주파 대역 생태계와 호환성이 높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낮추고, 5G에서 6G로의 전환과 관련 산업의 성장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주파수 자원은 6G를 포함한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5G 주파수 정책의 추진 경험과 국내외 6G 개발 현황을 고려해 6GHz 대역의 6G 시험 주파수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6G 개발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 6G 칩과 단말기, 계측 장비 등 핵심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주파수 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6GHz 대역 연구와 주파수 계획 수립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는 6GHz 대역의 이동통신 활용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제안했으며, WRC-23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 러시아, 아랍권, 아태 지역 및 미주 일부 국가들과 협력해 5G·6G용으로 700MHz 규모의 신규 중주파 대역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국제 이동통신용 중주파 대역 자원 규모는 50% 이상 확대됐으며,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향후 6GHz 대역의 IMT(국제이동통신) 활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2023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주파수 분배 규정(2023년판)(中华人民共和国无线电频率划分规定)>을 통해 세계 최초로 6425~7125MHz 대역을 6G를 포함한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지정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6G 주파수 계획 수립의 기준 사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6G 핵심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300건 이상의 기술 성과를 축적했으며, 현재는 2단계 기술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6G 표준 개발과 산업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30년 전후 상용화를 시작하고, 2035년에는 대규모 상용화를 추진해 1조 위안 규모의 6G 산업 및 응용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출처: 런민르보)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혁신! 화웨이 '타오(韜)의 법칙' 공식 발표

화웨이 반도체 팹리스(설계) 부문인 하이실리콘 허팅보(何庭波) 사장은 25일 상하이에서 열린 '2026 IEEE 국제 회로 및 시스템 심포지엄(半导体新路径探索与实践)'에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길 탐구와 실천'이라는 기조연설에서 무어의 법칙 한계를 뛰어넘는 '타오(韜, τ)의 법칙'을 공식 발표했다.

타오(τ)의 법칙은 기존의 공정 미세화를 '시간(τ) 축소'로 대체한다는 개념이다. 시간상수(τ)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로직 폴딩(Logic Folding) 등의 기술로 칩 내부 신호 전달 지연시간을 단축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반도체 및 전자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화웨이에 따르면, 타오(τ)의 법칙과 관련된 로직 폴딩 등 기술은 소자와 회로, 칩, 시스템을 아우르는 다층 구조의 기술 체계를 구성한다.

소자 계층에서는 트랜지스터와 배선저항, 기생용량을 최적화해 소자 수준의 시간상수(τ)를 최대한 줄인다.

회로 계층에서는 로직 폴딩 기술을 통해 기존 평면 배치 구조로 인한 거리상의 한계를 줄이고, 핵심 신호 경로의 배선 길이를 크게 단축한다. 또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전기용량 부하를 줄여 트랜지스터 집적도와 회로 성능을 대폭 높인다.

칩 계층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 칩에 이르는 전 계층 통합 설계를 통해 실제 워크로드에 맞춰 명령 처리 과정과 데이터 흐름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체 실행 시간을 단축한다.

시스템 계층에서는 링취(灵衢) 버스를 정의하고 컴퓨팅 시스템의 상호연결 프로토콜을 재설계한다. 이를 통해 초노드 환경에서 통합 메모리 주소 체계를 구현하고, 메모리를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 통신 지연시간을 크게 줄인다.

지난 6년간 모바일 소비자가전 네트워크 자동차 컴퓨팅 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타오의 법칙을 적용해 381종의 칩을 설계 및 양산했다.

그중 2026년 가을 출시 예정인 치린(麒麟, 기린) 칩은 로직폴딩(LogicFolding)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성능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 기술을 통해 2031년까지 1.4나노미터(nm)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5년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1975년에는 증가 주기를 2년으로 수정했으며, 이후 18개월 주기의 기술 발전 모델로 발전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준이 됐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업계는 새로운 아키텍처와 3D 패키징, 칩렛 등 새로운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 칩 성능이 10년마다 1,000배 향상된다는 '황의 법칙(Huang's Law)'을 제시했다. 이는 무어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차세대 칩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어의 법칙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경쟁하는 가운데, 타오(τ)의 법칙이 포스트 무어 시대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시장과 산업 생태계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다만 화웨이가 실제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주목할 만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차이렌서)

수입 의존 벗어나 26개국 수출, 전기접점 소재 경쟁력 키운 송장 기업

상하이시 송장구(松江区) 서산진(佘山镇)에 본사를 둔 구이엔중시(贵研中希)(상하이) 신소재과학기술유한공사는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제2차 품질관리 역량 우수기업 명단에 선정됐으며, '보증급(保证级)'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는 중국 전기접점 소재 분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급 전정특신(专精特新) '소거인(小巨人)' 기업인 구이엔중시는 1996년 민영기업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2018년 윈난성귀금속그룹(云南省贵金属集团)의 국유 지배 체제에 편입되면서 민영기업에서 국유 지배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전환했다.

국유기업의 브랜드와 원자재, 기술 역량에 민영기업의 유연한 운영 체계를 결합한 결과,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30.02%, 연평균 이익 증가율은 22.2%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97%에 달했다.

전기접점 소재는 각종 전기기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로, 군수, 항공우주, 신에너지차 산업의 중요한 기반 소재로 꼽힌다. 정충연(郑琮彦) 부회장은 "과거에는 첨단 전기접점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국산화 체계를 갖췄으며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글로벌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R&D 투자 비중을 3.2% 이상 유지해 왔으며, 발명특허 4건과 실용신안 특허 33건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은(Ag) 접점 소재 중심 사업에서 귀금속 와이어와 판재, 복합 스트립 소재, 정밀 프레스 부품, 친환경 신소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5G 통신과 소비자 전자제품, AI 연산용 열관리 소재 등 신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이엔중시의 제품은 전 세계 4개 대륙 26개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ABB, 지멘스(Siemens)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기업은 귀금속그룹의 '3815 전략'에 맞춰 단기적으로는 고정밀 금속 복합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신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성장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서산진(佘山镇)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적극 제공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증설 수요에 맞춰 정기적인 현장 방문과 토지 자원 연계, 임대 공장 확보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귀취안(张国全) 총경리는 "앞으로 신에너지와 AI 연산,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중국 신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신량망)

참고자료

- ◆ 런민르보(人民日报). 中 세계 최초! 6G 시험 주파수 사용 공식 승인
<https://mp.weixin.qq.com/s/v3ptRpwG3ZbXg51l8Wvthg>
- ◆ 차이렌서(财联社).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혁신! 화웨이 '타오(韜)의 법칙' 공식 발표
<https://mp.weixin.qq.com/s/orXM6qhv9OOIRv97mZB5rA>
- ◆ 신량망(新浪网). 수입 의존 벗어나 26 개국 수출, 전기접점 소재 경쟁력 키운 송장(松江) 기업
https://k.sina.com.cn/article_5952915720_162d24908067040qvk.html?cre=tianyi&mod=pcpager_finto utiao&loc=17&r=0&rfunc=33&tj=cxvertical_pc_pager_spt&tr=174

CHINA 창업



| | |
|--|----|
| [산업분석] 선저우 23 호, 9 개 과학실험 프로젝트 신고 중국 우주정거장 향한다 | 6 |
| [산업분석] 저도고 경제 하드웨어 넘어 운영 경쟁으로, DJI·메이탄·순펑퉁이 각축 | 10 |
| [기업분석] 이동형 로봇 기업-매니코어 귀즈로봇(国自机器人) | 14 |
| [지역분석] 지린성 창춘 하이테크산업구 | 20 |



[산업분석] 선저우 23호, 9개 과학실험 프로젝트 싣고 중국 우주정거장 향한다

선저우(神舟) 23호 유인우주선이 9개 과학실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향한다. 이번에 탑재되는 실험 샘플과 장비의 총중량은 약 54kg이다. 간세포를 비롯해 비.애기장대 종자, 나노자임, 방선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다양한 실험 소재가 포함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우주 환경 검증 실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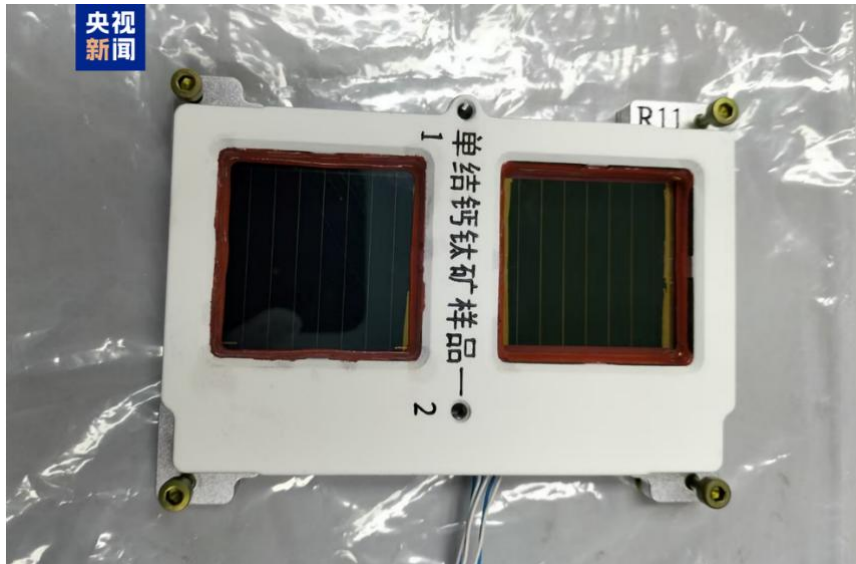
선저우 23호는 두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와 소자를 대상으로 우주 실험도 진행한다.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3세대 태양전지로 꼽힌다. 건전지나 전기자배터리 같은 일반적인 저장형 배터리와 달리 별도 충전 과정 없이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높은 출력 대비 경량성, 얇고 유연한 구조, 낮은 제조 비용 등 장점을 갖춰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가운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향후 중국 우주정거장과 심우주 기지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우주 공간에는 자외선과 입자 방사선, 고농도 원자산소에 의한 부식,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극한 환경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운용이 가능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선저우 23호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대상으로 한 궤도상 실증 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전력 변환 효율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살펴보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실험은 우주 스펙트럼 환경과 고에너지 입자 조사, 원자산소, 극심한 온도 변화 등 조건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와 소자의 성능 변화 및 성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 고출력 및 경량화, 저비용, 유연형을 갖춘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향후 저궤도 위성과 심우주 탐사, 달 기지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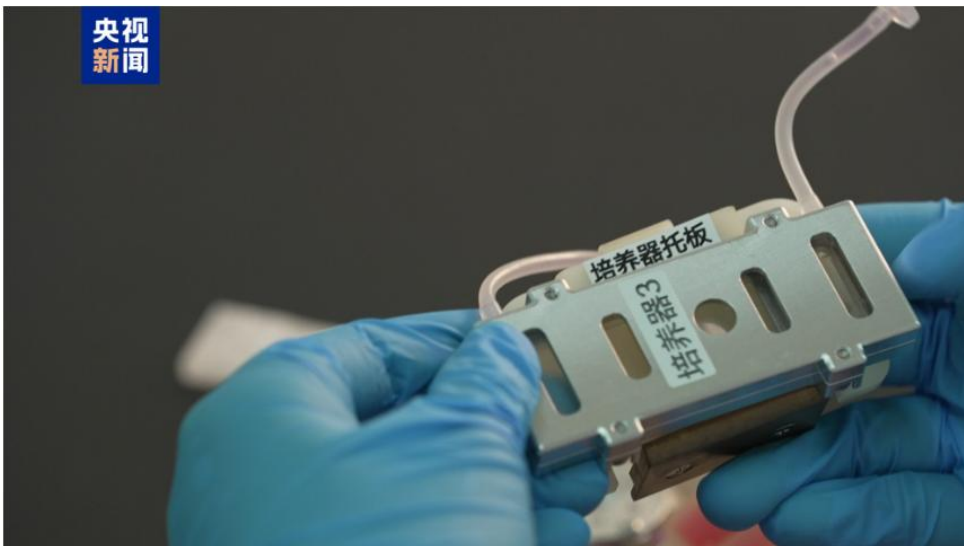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벼 연속 재배 실험

미래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에서 농작물을 고효율, 고품질, 고수확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선저우 23호는 우주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 과제로 '우주 환경에서 벼의 다세대 유전 안정성과 환경 적응성 조절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에는 우주정거장에서 수확한 벼 종자를 다시 파종해 연속 재배하는 실험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지구에서 가져온 벼 종자를 우주정거장에서 재배한 뒤, 수확한 종자를 다시 지구로 가져와 연구했다. 이번에는 우주정거장에서 벼를 재배해 얻은 종자를 다시 파종하고, 이를 연속 재배해 후대 종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장기간 우주 미세중력 환경이 벼의 유전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신규 유전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작물 유전자원 확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생명과학 실험도 다수 진행

선저우 23호는 이 밖에도 다양한 우주 생명과학 실험을 수행한다.

‘우주 환경에서의 생체 분자 상분리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상분리 현상에 주목해 미세중력이 간세포의 지방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다. 연구진은 향후 장기

우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간 질환의 조기 개입과 예방 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노자임의 생체 고분자 합성 및 보호 메커니즘 연구', '우주 환경이 대표적 방선균의 형태적 특성과 유전에 미치는 영향 및 분자 메커니즘 연구', '물리·생물학적 방사선 계측 분석을 기반으로 우주 방사선과 미세중력이 벼·애기장대 DNA 메틸화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도 함께 진행된다. 나노자임과 방선균, 식물 종자 등 세 종류의 실험 시료를 우주정거장 외부에 노출해 5개월간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된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생명 기원과 관련된 촉매 물질부터 미생물의 환경 적응 진화, 고등식물의 유전적 변이에 이르기까지 우주 방사선이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 양광망(央广网). 선저우 23 호, 9 개 과학실험 프로젝트 신고 중국 우주정거장 향한다
http://news.cnr.cn/native/gd/20260523/t20260523_527631943.shtml

[산업분석] 저도고 경제 하드웨어 넘어 운영 경쟁으로, DJI·메이탄·순펑퉁이 각축

제10회 세계 드론 대회 및 국제 저도고 경제·무인시스템 박람회(第十届世界无人机大会暨国际低空经济与无人系统博览会)가 5월 21일 선전(深圳)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eVTOL, 산업용 드론을 비롯해 통신·항법, 저도고 보안, AI 알고리즘 등 저도고 경제 산업 관련 기업 1,220곳이 참가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0만 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과열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해온 저도고 경제는 이제 다시 '사업성'이라는 본질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 운항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통해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드웨어 경쟁 넘어 '운영 경쟁'으로

2026년 박람회는 더 이상 비행 성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었다. 저도고 경제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DJI(大疆), 메이탄(美团), 순펑퉁이(顺丰丰翼) 등 주요 기업들의 행보에서도 업계가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 기반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 지능형 운영 체계 고도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JI(大疆)는 이번 행사에서 단일 기체 성능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또한 <저도고 경제 인프라 발전 백서(2026)>(低空经济基础设施发展白皮书

(2026)>를 발표하고, 저도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소개했다. 백서는 저도고 산업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도 짚었다. 저도고 경제의 산업적 가치는 결국 드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DJI 산업용 솔루션 엔지니어 덩닝(丁宁)은 “산업용 서비스 고객은 주로 정부기관과 기업으로, 생산 효율 향상과 운영 비용 절감, 데이터 정확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DJI는 소형·중형·대형 기체를 아우르는 전 라인업과 완전 자동화 운영 플랫폼 ‘DJI Dock 3’를 공개했다. 비행체와 탑재 장비, 소프트웨어, 산업별 솔루션까지 통합 제공하는 형태다.

DJI Dock은 이미 여러 지역에 구축되며 도시 저도고 운영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저우(广州) 난사구(南沙区)는 공동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DJI Dock 36대를 구축해, 도시계획, 수자원 등 10여 개 부서가 함께 활용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비행 횟수는 4만3천 회를 넘어섰고, 시스템 가동률은 100%를 기록했다.

전력 설비 점검 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전망(国网) 타이저우(泰州) 전력공사는 DJI Dock 207대를 도입해 시 전역 5,800km² 규모의 저도고 작업망을 구축했다. 각 기지는 하루 평균 12회 이상의 유효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 효율은 기존 인력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탄(美团)은 이번 행사에서 자사 드론 기반 저도고 물류망이 상시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하고, 업계 전반에 협력 체계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오이넨(毛一年) 부사장은 “저도고 항공 네트워크의 핵심은 도시 물류와 배송 서비스의 공간적 제약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메이탄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 4세대 장거리 배송 드론 ‘M-Drone 4L Winch’와 설치 면적을 1.4m²까지 줄인 스마트 연계 허브 ‘M-Port 3’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별도 착륙 공간 없이도 공중에 정지한 상태에서 물품 배송이 가능해져, 복잡한 도심 환경 대응력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메이탄은 10개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배송 서비스는 음식 배달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운영 지역 역시 저장(浙江), 후난(湖南), 광시(广西)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순펑퉁이(顺丰丰翼)는 이번 행사에서 도시간 물류 시장 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퉁이는 ‘펑저우(丰舟)90’, ‘팡저우(方舟)80’ 등 주력 기종을 선보였다. ‘펑저우90’은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고정의 기체로, 최대 20kg 화물을 싣고 최대 7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동력 시스템과 센서에는 다중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 복잡한 도시간 운항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현재 품이는 단순 점대점 연결을 넘어 선전(深圳) 바오안(宝安), 룡화(龙华), 둥관(东莞) 사텐(沙田), 탕샤(塘厦), 송산후(松山湖), 광저우(广州) 난사(南沙) 등을 잇는 광역 드론 물류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품이 관계자는 “바오안-둥관 사텐 도시간 노선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며 “향후 공역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운항 횟수와 물동량이 늘어나면 본격적인 수익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당 노선을 선전-둥관 제조업 공급망 효율을 높이는 핵심 물류 축으로 보고 있다. 음식 배달 중심의 B2C 모델과 비교하면 B2B 물류는 객단가가 높고 수요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저도고 안전 인프라 경쟁도 본격화

저도고 비행체가 급증하면서 도시 저도고 관리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류, 순찰, 관광 등 산업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불법 침입 위협에 대한 대응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파가 복잡하게 얽히고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에서는 탐지 대상도 다양해 기존 레이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후난쿤레이테크(湖南坤雷科)는 이번 행사에서 도시급 저도고 안전 통제 시스템과 핵심 시설 방어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는 전 대역 드론 탐지 장비 'URD360 Pro'와 고정밀 전파 교란 시스템 'URJ240'을 선보였다. URD360 Pro는 다채널 광대역 디지털 수신기와 다중 안테나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20MHz~8GHz 전 대역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조된 불법 드론까지 식별할 수 있어 공항 주변 통제 구역과 핵심 관리 구역, 대형 행사 보안 등 고난도 환경에 활용할 수 있다.

쿤레이테크 관계자는 “고출력 전방향 전파 교란 장비는 출력이 높아질수록 주변 통신망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출력을 낮추면 대응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URJ240은 지향성 모드와 전방향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 공항이나 도심에서는 특정 방향에 전파를 집중해 주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활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목표물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쓰촨중쯔위안그룹(四川中子源集团)은 드론 대응 기술 역시 만능 전파 교란 장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통·수자원 시설, 에너지 인프라, 보안 시설, 도심 핵심 구역 등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항과 댐은 비행체를 정확히

식별해 허가된 비행체의 운항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변전소와 유류 저장 시설은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며, 도심 핵심 구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안과 순찰 분야에서는 AI가 산업 구조 변화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중쯔위안그룹 산하 첸쥬테크(千决科技)는 고성능 연산 장치를 탑재한 JS 시리즈 지능형 광전자 짐벌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다양한 사물 인식과 상황 매칭 기능을 갖췄다. 회사 관계자는 공중·지상 연계 솔루션의 운영 효율이 기존 인력 대비 8~15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 기반 항법 기술을 통해 GPS 신호가 차단된 산악 협곡이나 지하 배관시설 등 환경에서도 센티미터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도고 안전 시장은 단순 장비 판매 중심에서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드론이나 재밍건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비전 기반 항법과 실시간 사물 인식, 위험 예측 기능을 활용한 능동형 보안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순찰 분석 서비스는 향후 저도고 경제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 신량망(新浪网). 저도고 경제 하드웨어 넘어 운영 경쟁으로, DJI·메이탄·순펑퉁이 각축
<https://finance.sina.com.cn/roll/2026-05-23/doc-inhyvtis7876736.shtml>

[기업분석] 이동형 로봇 기업-매니코어 귀즈로봇(国自机器人)



기업 개요

저장귀즈로봇기술주식유한공사(浙江国自机器人技术股份有限公司)는 이동형 로봇 분야를 주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순찰과 스마트 물류,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생산 역량과 제품 경쟁력, 산업 현장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귀즈로봇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력망과 발전, 석유·가스·화학, 철도교통, 공동구, 태양광, 중공업, 전자재·화학, 첨단 제조, 신에너지,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적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외 1,000여 개 고객사에 로봇 제품과 솔루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한국·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등 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도 진출해 있다. 현재까지 누적 특허 출원 건수는 1,500건을 넘어섰으며(PCT 국제특허 포함), 각종 수상 실적도 200건 이상에 달한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 리프팅 AMR



AM50



Ants 3



Ants 20

■ 스마트 이송 로봇



B5-BSS22AL60



BX-TFS24IL240



B10-RFD11IL800

■ 스마트 피킹 로봇

| | | |
|---|---|---|
|  |  |  |
| P4 | P5 | SKY-PORT |

스마트 중량물 운반 로봇

| | | |
|---|---|---|
|  |  |  |
| 3톤 중량물 운반 로봇 | 10톤 중량물 운반 로봇 | 60톤 중량물 운반 로봇 |

■ 스마트 무인지게차

| | | |
|---|---|---|
|  |  |  |
| MINI 운반 로봇 | 2톤 적재 로봇 | 3톤 카운터밸런스 무인지게차 |

■ 자동화 창고 솔루션

| | |
|---|--|
|  |  |
| 4방향 팔레트 셔틀 | 수직 리프트 모듈 |

산업별 적용 사례

■ 자동차 제조

귀즈로봇(国自机器人)은 샤오미(小米) 자동차 슈퍼팩토리에 AMR 94대와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공급했다. 다양한 차종과 규격의 물류 운반체가 혼재된 환경에서도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7mm 수준의 공정 정밀도를 확보함으로써 샤오미 자동차의 스마트 제조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 리테일

귀즈로봇은 롯데(乐天)그룹에 스마트 리테일 물류 솔루션을 공급했다. 피킹 작업을 중심으로 컨베이어와 WCS, ECS, RCS를 연계해 상품 분류 속도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작업자와 상품, 창고, 배송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물류 체계를 구축해 물류센터 전반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켰다.



■ 가구 제조

귀즈로봇은 구자(顾家) 화중지역 생산기지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재 피킹과 공정 간 이송을 자동화해 공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다.



■ 3C 전자

귀즈로봇은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연계해 디지털 공장 SMT 생산라인 전반을 아우르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지능화, 자동화를 뒷받침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 공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물류

미국 F사는 귀즈로봇과 두 차례에 걸친 협력을 통해 400대 이상의 피킹 로봇을 도입했다.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운영 안정성과 관리 효율을 높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피킹 생산성을 50%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망 가운데 첫 완전 자동화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 건설기계

귀즈로봇은 타이위안중공업(太重集团) 산하 산시타이중공정기계(山西太重工程机械) 스마트공장의 스마트 제조와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계·구축에 참여했다. 약 200대의 다양한 기종과 적재 용량의 로봇을 적용해 굴착기 생산 공정과 물류 공급 체계 전반의 자동화 관리를 추진했다.



■ 신에너지

하이천(海辰) 미국 공장 프로젝트는 귀즈로봇의 첫 대규모 해외 통합 구축 사업이다. 귀즈로봇은 리치트럭형 무인지게차와 미니 스택터 로봇, 리프팅 AMR 로봇, 중량물 운반 로봇 등 100대 이상의 물류 로봇을 공급했으며, 고층 랙과 자동 제어식 보관 설비, 오버헤드 크레인, 자동문 등 물류 설비를 함께 구축했다. 또한 주요 설비 간 연동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참고자료

- ◆ 귀즈로봇 웹사이트(国自机器人官网)
<https://www.gzrobot.com/>

[지역분석] 지린성 창춘 하이테크산업구

개요

■ 허가 일자

지린성 창춘 하이테크산업구는 1991년 설립

■ 주요 산업

바이오 의약, 첨단장비 제조, 현대 서비스업

■ 주요 지표

| 구분 | 2022년 | 2023년 | 성장률 |
|---------|--------------|--------------|----------|
| 수출 총액 | 28.97억 위안 | 31.93억 위안 | 10.20% ↑ |
| 하이테크기업 | 813개 | 877개 | 7.87% ↑ |
| 등록 기업 수 | 20,301개 | 22,210개 | 9.40% ↑ |
| 영업 수익 | 4,612.35억 위안 | 4,845.41억 위안 | 5.05% ↑ |

창춘(长春) 하이테크산업구는 1991년 국무원 승인을 거쳐 설립된 중국 최초의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구 가운데 하나다. 2022년에는 국무원 승인을 통해 창춘하이테크산업구를 핵심 권역으로 하는 창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가 출범했다.



창춘 하이테크산업구는 '311X' 현대화 산업체계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과 첨단장비 제조, 현대 서비스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전략 신산업으로 육성하며 '3개의 주력 산업+1개의 신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개의 밸리와 하나의 기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약밸리(药谷)'는 총면적 18.4km² 규모로 조성되며, 연구개발 서비스(CRO·임상시험 수탁기관)와 시제품 생산 지원(CDMO·위탁개발생산)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형 백신과 바이오의

약,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400개 이상의 의약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산업 규모는 300억 위안을 넘어섰다. 국가 유전자공학 분야 대표 기업인 진싸이약업(金赛药业)과 바이오 백신 전문기업 바이커바이오(百克生物) 등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밸리(光谷)'는 중국과학원 창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와 지린대학(吉林大学)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신형 전자부품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광전자정보 분야 기업 450여 개가 이곳에 입주해 있다. '신소재 기지'는 중국과학원 창춘응용화학연구소 및 하이푸룬스(海谱润斯·Hyperions)와 협력해 광전자 소재와 발광 소재, 화학의약 원료 등 기능성 소재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린성(吉林省) 과학기술혁신연구원과 창춘과학기술혁신관을 설립하고, 극한조건 연구시설과 흑토지 보호·이용 국가중점실험실을 조성했다. 또한 고분자 과학기술과 희토류 고부가가치 활용 분야 국가중점실험실을 재편해 국가 전략과학기술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KIC 뉴스



KIC 중국, 서울경제진흥원·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와 MOU 체결...한·중 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 23

2026한국혁신기업 청두행...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 24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4525



KIC 중국, 서울경제진흥원·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와 MOU 체결... 한·중 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

2026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중 기술혁신 협력 확대와 청두(成都)·한국 간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창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루송밍(路松明) 쓰촨성 과학기술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에는 김종문 KIC 중국 대표가 동행했다.

방문 기간 동안 KIC 중국과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国家技术转移西南中心), 서울경제진흥원(SBA)은 <과학기술 혁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关于支持科创企业培育的业务合作协议)>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혁신 자원 연계, 산업 생태계 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기술혁신 기업 육성과 창업·사업화 프로젝트 협력, 국제 기술 교류, 한·중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울과 쓰촨성(四川省)의 중소 기술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중 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교류와 프로젝트 연계, 글로벌 행사 개최, 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적인 협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업·기업 지원 기관으로 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는 중국 서부지역의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기술이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KIC 중국은 한국 정부의 대중국 기술혁신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국 과학기술 생태계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쓰촨성은 국가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 거점과 중국 서부 지역 AI 산업 중심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AI와 디지털 경제, 기술 사업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협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KIC 중국은 일대일로 과학기술교류대회와 한·중 기술혁신포럼 등을 기반으로 쓰촨성 과학기술청,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 한국 혁신기관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혁신기업과 중국 서부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한국혁신기업 청두행...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

KIST KISTInnovation

KIC 글로벌혁신센터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成都高新
CDHT国家技术转移西南中心
National Southwestern Tech-Transfer Center

2026한국혁신기업청두행

혁신기업로드쇼K-Demo Day

2026.06.09(화) 09:00-14:00

청두시우호구정용회(菁蓉汇) 7호동 1층 회의실

>>> 프로그램 소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은 한국 혁신기업과 중국 정부, 산업단지 및 혁신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내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및 주요 혁신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청두시는 중국 서부지역의 핵심 혁신거점으로서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두고신구 또한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KIC중국은 한·중 혁신기업 간 교류 확대와 기술사업화 협력 강화를 위해 '2026 한국 혁신기업 청두행-기업로드쇼K-Demo Day'를 기획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 우수 혁신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현지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협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로그램 일정 06.09

>> 09:00~09:45 한중 귀빈 축하&주제강연

>> 09:45~12:00 한국혁신기업 IR피칭

READYCUR

NEAR
Brain

ARGOSVISION

TruPixel

GOPHER SOFT

DEPOLAB

AL+M
altmedical

DATON

Gencellmed

MIJ
Medical Innovation Journey

IMS

MEGAZONE
CLOUD
Transform - Tomorrow - Together

>> 12:00~14:00 한중기업1:1매칭회/오찬

📅 전체일정 소개

| 날짜 | 시간 | 내용 |
|------------|-------------|---------------------|
| 2026년6월9일 | 09:00-12:00 | 한국혁신기업로드쇼K-Demo Day |
| | 12:00-14:00 | 한중기업1 : 1 매칭회 |
| | 15:00-17:00 | 청두시 산업시찰 & 기업가교류회 |
| 2026년6월10일 | 09:30-11:00 | 청두시 산업시찰 & 기업가교류회 |

>>> 참여안내



(행사장소)



(바코드로 참여 신청)

🌐 <https://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

☎ (중)+86 010-6780-8840

(한)+82 070-4084-1234

(문의)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 명칭 | 기간 | 장소 | 분야 |
|--|-----------------------|------|-------|
| 제6회 중국-해외 광산업 공급망 발전 포럼 | 2026.06.10 | 베이징 | 에너지 |
| 2026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 2026.06.25-2026.06.27 | 베이징 | 인공지능 |
|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 2026.07.09-2026.07.11 | 청두 | 에너지 |
| 2026년 제11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 (ICSIP2026) | 2026.07.17-2026.07.19 | 창저우 | 정보 기술 |
| 2026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 (AIPHC) | 2026.07.17-2026.07.19 | 청두 | 인공지능 |
| 제10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ICRSTA) | 2026.07.17-2026.07.19 | 청두 | 정보 기술 |
| 제6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 (MCDD) | 2026.07.17-2026.07.19 | 청두 | 의료건강 |
| 제8회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및 지능형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MLPRIS) | 2026.07.17-2026.07.19 | 청두 | 인공지능 |
| 2026년 가상현실 연구 및 응용 국제 심포지엄(VVRA) | 2026.07.17-2026.07.19 | 청두 | 인공지능 |
| 제9회 지능형 로봇 및 제어 공학 국제 학술대회(IRCE2026) | 2026.08.03-2026.08.06 | 우루무치 | 인공지능 |
| 제2회 스마트 전망 및 지속가능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SGSE2026) | 2026.08.03-2026.08.05 | 란저우 | 에너지 |
| 2026 중국 자동차 내외장 지능형 및 혁신 컨퍼런스 | 2026.08.12 | 상하이 | 자동차 |
| 2026 중국 자동차 시트 기술 혁신 서밋 포럼 | 2026.08.13 | 상하이 | 자동차 |
| 제9회 패턴 인식 및 인공지능 국제 학술대회 (PRAI2026) | 2026.08.14-2026.08.16 | 상하이 | 인공지능 |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